



중국 기본양로보험연금, 10년 후 고갈 우려

이소양 연구원

- 6월 20일 신화망(新華網)은 2011년 말 1.92조 위안으로 발표된 기본양로보험연금(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) 적립금이 실제로는 1.7조 위안 부족한 2,039억 위안에 불과하다고 발표함.
 - 중국의 공적연금제도인 기본양로보험연금은 기존의 소수 민간 기업 중심의 기업연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기업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.
 - 공기업들의 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던 방식이었기 때문에, 1997년 이전에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의 연금을 1997년부터 기본양로보험연금에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부실화됨.
 - 중국 정부는 공기업들에게 1997년 이전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분할 납부 방식으로 납입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를 기본양로보험연금에 반영하였으나, 공기업들이 분할 납부하지 못해 장부상 금액보다 실제 적립금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음.

- 6월 19일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 쩡빙원(鄭秉問)은 중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기본양로보험연금 적립금이 10년 내에 고갈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,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, 공기업의 미납보험료 납부, 퇴직연령 연장 등을 제시하였으나 실효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됨.
 - 중국은 인구 고령화로 2020년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7.8%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 - 중국의 사회보험(한국의 4대 보험과 유사한 제도) 비용이 노동자 수입의 40%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도 어렵고, 공기업 미납보험료 납부나 정부의 재정 지원 등도 정부 재정적자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.
 -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은 근로자들의 반발과 청년 취업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.

(신화망, 신량망 6/20)